실천민속학연구

특집: 민속학의 공공성을 묻다

第 34 號

실천민속학회
2019. 8.

▌기획논문: 민속학의 공공성을 묻다

공공민속학의 가능성과 과제 스가 유타카(菅豊) / 9
—학문의 공공성이 문제되는 시대에 민속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민간분야 공동체 아카이빙의 성과와 과제 손동유 / 39

▌일반논문

버내큘러 문화와 민속, 민속학 정수진 / 67

‘조선민속학회’ 재론 남근우 / 95

굿춤 전승지식의 재생산과 '몸-지식'의 근대적 변화 전성희 / 137
—동해안별신굿 무괘춤사위을 중심으로—

안동놋다리밟기의 유형론 재고 한양명 / 171

신라의 세시음식에 대한 추론적 접근 배영동 / 197

1930~40년대 일본 지역조직의 재편과 관제적 자치 진필수 / 233
—오인조(五人組)에서 인조(隣組)로—

회칙 / 285
편집위원회 규정 / 289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 291
논문투고 규정 / 295
학회지 발간 및 심사에 관한 규정 / 298
『실천민속학연구』 제34호 투고논문 심사 결과보고서(양식) / 301
『실천민속학연구』 제34호 투고 원고 심사결과 / 302

The Possibility and the Task of Public Folklore
－how would the folklorist react when the publicness of the academy is in question?－
……Suga Yutaka / 36

A Study on the Achievements and Tasks of Community Archiving in the Private Sector
……Sohn, Dong-you / 62

Vernacular Culture and Folklore, Folkloristics
……Jung, Soo-jin / 93

Reconsideration on the ‘Chosun Folklore Society’
……Nam, Kun-wu / 134

Modern Change in Reproduction of Lore of Gut’s Dance and Body-Knowledge
－Case Study of Mugwan(dance) in Donghaean Byeolsingut－
……Jeon, Seong-hee / 167

Reconsideration of the Theory of Types in Andong-Notdaribapgi
……Han, Yang-myeong / 194

An Inferential Approach to Seasonal Holiday Foods of the Silla Dynasty in Korea
……Bae, Young-dong / 230

Re-formation of Japanese Local Organization and State-inspired Autonomy in the 1930s and 1940s
－From Goningumi(五人組) to Tonarigumi(隣組)－
……Jin, Pil-su / 283

기획논문 ‘민속학의 공공성을 묻다’

공공민속학의 가능성과 과제 ‖ 스가 유타카(菅豊)
민간분야 공동체 아카이빙의 성과와 과제 ‖ 손동유

https://doi.org/10.35303/spf.2019.08.34.9

공공민속학의 가능성과 과제
-학문의 공공성이 문제되는 시대에 민속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스가 유타카(菅豊)*
번역: 김광식, 남근우**

〈목 차〉

1. 머리말: 지금 민속학의 공공성이 문제다
2. 공공민속학이란 무엇인가?
3. 아카데미아 바깥(outside of academia)으로 열린 민속학
4. 내 조사지에서의 체험: 지진 재해에 직면한 필드
5. 기대에 반하는 협력작업의 현장
6. 나의 변화, 사람들의 변화
7. 지역 사람들의 주체화: 나의 공공민속학
8. 맺음말

[국문초록]

지금 학문의 공공성이 문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자나 전문가는 자신이 전공하는 학문과 지식생산이 시민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이나 사명, 그리고 그 방법과 윤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것은 응용과학과 자연과학 연구자뿐만 아니라 종래 실사회의 문제와 약간이나마 거리를 두어온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도 예외가 아니다.

민속학 분야에서는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공공민속학이 시작되어, 사회실천 속에서 민속학의 응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활동의 주안점은 문화의 재현과 응용, 나아가 재맥락화, 그리고 다양한 행위자들의 협력작업이라는 부분에 있다. 공공민속학은, 공공민속학자가 다양한 수법으로 민중 전통이나 그것을 보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존재하는

* 도쿄대학 대학원 정보학 環・學際 정보학부 교수
** 릿쿄대학 강사, 동국대학교 교수

곳에 개입, 관여하면서 다종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그 문화를 재현하고 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민속학의 특징 중 특히 협력이라는 행위의 존재방식은 학문의 공공성이 문제되는 시대의 기본 이념이 되고 있다. 그런 까닭에 공공민속학에 있어서 공공민속학자는 민속학을 다양한 행위자에게 개방할 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행위자와 전문가의 관계방식조차도 되묻지 않으면 안 된다. 공공민속학에서는 민속학 연구자가 전통의 담당자를 대하는 자세나 방법, 그리고 전통의 담당자가 민속을 둘러싼 실천을 지향하는 자세와 방법이 항상 문제시되고 있다. 또한 그것은, 예전엔 전문적인 민속학 연구자의 관리 하에 있던 민속을 일반 대중이 관리하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민속의 유지나 보호, 개변, 이용에 대중들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공공민속학에서는 전문가로서의 민속학 연구자가 비전문적인 사람들을 향해 그 지식을 단지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양자가 협력하여 함께 민속학을 수행한다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현재 그 협력작업의 이상적인 원리나 숭고한 이념이 일반화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것이 충분히 관철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니, 오히려 연구자나 전문가가 협력 작업을 위장하여, 협력하는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는 심각한 사태도 보게끔 되었다. 그런 가운데 공공민속학자는 농밀한 필드워크로 사람들이 바라는 현실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에 공감하며, 그들이 원하는 현실을 협력작업을 통해 창출함으로써 협력작업의 위장에 대항해야만 한다. 바로 거기서 장기간에 걸쳐 펼쳐지는 민속학적 사회실천은 여타 학문에는 부재한 방법적 독자성과 우위성을 보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공공민속학, 응용, 협동, 공감, 표상, 관여

1. 머리말: 지금 민속학의 공공성이 문제다

20세기 말 '퍼블릭(public)=公共'의 관형어를 두른 학문분야가 수없이 등장했다. 가령 공공부문에 얽힌 경제적 측면을 분석하는 공공경제학(Public economics), 공공정책의 기획, 입안에 관한 전문적 기술을 考究하는 공공정책 연구(Public policy studies) 등이 그 대표 격이겠다. 단, 퍼블릭을 강조한 학문분야는 현재 이와 같이 본래부터 실학이었던 것들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응용성이 미흡하다고 일컬어진 인문·사회과학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예컨대 공공인류학(Public anthropology)[1], 공공고고학(Public archaeology)[2],

1) Peacock, James L., "Anthropology and the Issues of Our Day", *AnthroNotes* (20) 1, 1998, pp.1~5; Borofsky, Robert, "Public Anthropology: Where To? What Next?", *Anthropology*

공공사회학(Public sociology)[3], 공공역사학(Public history)[4] 등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겠다. 이들 개개 퍼블릭한 학문의 생성은 반드시 서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생성의 道程 역시 동일한 게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생성된 데에는 '학문의 공공성'에 관한 관심, 요청의 고양과 같은 공통된 시대배경이 있었다.[5] 이 글에서 다룰 공공민속학(Public folklore) 역시 그러한 시대배경 아래 미국에서 탄생한 것이다.

지금 민속학의 공공성이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은 자신이 전문적으로 종사해온 학문이나 지식생산이 시민사회 속에서 수행하는 구실이나 사명, 그리고 그 방법이나 윤리에 대해 진지하게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직면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이처럼 학문의 공공성이 문제시되는 시대에 공공민속학의 양상이 종래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거기서 요구되는 협력작업이라는 이상적 원리에 대해 생각해보겠다. 이어, 다양한 행위자들이 실제 협력작업을 하는 현장에서는 공공민속학의 그 이상적 원리가 충분히 관철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내 경험을 가지고 살펴보겠다. 나아가 기왕의 규범이나 매뉴얼에 구속되지 않는, 定型化를 지양한 '내' 공공민속학의 방법을 소개해 보겠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갈음해, 민속학의 공공성을 재고할 때 기존의 응용・실천의 수법이나 이념을 참고하면서도,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각자 스스로 제 나름의 공공민속학 방법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 보겠다.

News (41)5, 2000, pp.9~10.

2) McGimsey, Charles R. III, *Public Archeology*, New York: McGraw Hill, 1972; Merriman, Nick, "Introduction: Diversity and Dissonance in Public Archaeology", in Nick Merriman ed., *Public Archaeology*, New York: Routledge, 2004, pp.1~17.

3) Burawoy, Michael, "For Public Sociology (ASA Presidential Address, 2004)",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0, 2005, pp.4~28.

4) Kelley, Robert, "Public History: Its Origins, Nature, and Prospects", *The Public Historian* 1 (1), 1978, pp.16~28; Leffer, Phyllis K. and Joseph Brent, *Public and Academic History: A Philosophy and Paradigm*, Malabar: Robert E. Krieger Publishing Company, 1990; Cauvin, Thomas, *Public History: A Textbook of Practice*,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16; Dean, David M. ed., *A Companion to Public History*, Hoboken: John Wiley & Sons Ltd, 2018.

5) 菅豊, 『「新しい野の学問」の時代へ: 知識生産と社会実践をつなぐために』(岩波書店, 2013).

2. 공공민속학이란 무엇인가?

주지하다시피 공공민속학이란 생각은 미국에서 탄생했다. 그것은 당초 정부 관계의 문화부문 등과 같은, 공공부문(public sector) 소속의 행위자가 중심이 된 응용적 민속학을 의미했다. 따라서 그것은 원래 문화정책과 깊숙이 관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나중엔 시민사회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그 모습이 바뀌어 왔다.[6)]

당초 응용민속학이라 표현되었던 공공민속학은 미국에서 일찍이 1940년대에 그 맹아가 보여, '공공민속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자민 앨버트 보트킨(Benjamin Albert Botkin) 등을 배출했다. 보트킨은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주도된 뉴딜정책의 일환인 '연방작가 프로젝트(Federal Writers' Project)', 그 대규모의 문화정책 속에서 활약을 이어갔다. 그는 민속학에서 민중성의 존중을 줄곧 관철하고 민중들에게 민속학의 학문성과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데에 부심했는데, 그 때문에 당시 미국민속학의 주류였던 아카데믹 포클로리스트(academic folklorist), 즉 민속학의 아카데미즘화를 강하게 추진한 엄격한 강단 민속학자들에 의해 민속학을 '통속화한 자(popularizer)'라 비판을 받았다. 그리하여 공공민속학은 공격의 표적이 되어 민속학계에서는 그 존재감을 상실했다. 하지만 그 후 일반 사회에서는 미국 민속학계에서 불순하다고 간주한 실천성, 응용성이 있는 공공민속학적 활동 쪽이 오히려 요청을 받게 된다.

1960~1970년대가 되어 공공민속학은 크게 꽃을 피웠다. 이 시기에 미국에서는 전미예술기금(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스미소니언 민중생활 페스티벌(Smithsonian Folklife Festival), 미국 민중생활 센터(American Folklife Center)와 같은 공공민속학과 관련한 3대 공공부문 거점이 만들어졌다. 이 삼자는 자금, 조직, 활동의 세 가지 면에서 공공민속학의 발전에 크게

6) 菅豊, 「現代アメリカ民俗学の現状と課題: 公共民俗学(Public Folklore)を中心に」, 『日本民俗学』 263(日本民俗學會, 2010); 「公共民俗学の可能性」, 岩本通弥・菅豊・中村淳編, 『民俗学の可能性を拓く』(青弓社, 2012), 83~140쪽; 菅豊, 앞의 책(2013).

기여했다. 그것들을 거점으로 공공민속학이 발전을 이뤄 최근 수십 년 사이 미국 민속학계에서 아주 큰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7]

이처럼 미국에서 초기 공공민속학은 공공부문과 깊숙이 관련되어 온 게 특징적이다. 예전의 공공민속학은 '공공부문의 민속학(public sector folklore)', 즉 '행정에 의한 민속학'으로서 좁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곤 했는데, 지금도 그러한 인식이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니다. 가령 협의의 공공민속학은 대학 등의 연구기관과는 다른 조직이나 기관에 소속된 민속학자에 의해 응용적 견지에서 행해지는 민속학적 연구나 활동을 가리킨다. 공공민속학을 표방하는 민속 연구자, 곧 퍼블릭 포클로리스트(public folklorist)의 대부분은 주로 예술 등의 문화 관련 審議會나 문화유산에 관한 역사계열의 협회, 도서관, 박물관, 커뮤니티 센터, 초중등학교 등의 교육기관, 비영리의 민속예술이나 민속문화 조직 등의 공공부문에 소속되어 있다. 그런 곳에서 조사와 연구뿐만 아니라 퍼포먼스나 민속예술의 전문교육, 전시, 이벤트, 음성・영상 기록, 영화나 라디오 프로그램, 비디오, 서적 제작 등의 공공적인 프로그램이나 교육 관련 소재들을 만들어 내는 활동에도 종사하고 있다. 단지 문화의 연구만이 아니라 전통의 담당자(tradition bearers)나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혹은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해 응용적인 문화 발신과 문화 재현, 그리고 문화의 객체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위처럼 행위자가 소속한 부문(sector)을 가지고 공공민속학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그런 좁은 해석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공공민속학의 활동 범위 속에서 공공부문에 소속하는 연구자가 수행하는 역할은 아직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실제 미국의 공공민속학에서는 공공부문에 국한하지 않고 소속을 뛰어넘어 협력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처지를 넘나드는(trance positional) 영위가 중요시되고 있다. 그런 국면과 활동 등에서는 강단 민속학자 역시 공공민속학의 중요한 담당자가 되고 있다.

---

7) 위의 책; 菅豊, 앞의 글(2010).

미국에서 공공민속학을 주도해온 로버트 배런(Robert Baron)과 닉 스피처(Nick Spitzer)는 현대의 공공민속학을 표현하는 데 걸맞는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 (공공민속학이란: 인용자 주) 전통의 담당자와 민속학자 혹은 문화에 관한 전문가가 협력작업적인 시도와 씨름을 통해 커뮤니티 내부 혹은 커뮤니티를 초월해 나타나는 새로운 윤곽선과 맥락 속에 있는 민중 전통을 재현하고 응용한다(The representation and application of folk traditions in new contours and contexts within and beyond the communities in which they originated, often through the collaborative efforts of tradition bearers and folklorists or other specialists).[8]

이 정의의 주안점은 문화의 재현(representation)과 응용(application),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 그리고 관여자들의 협력작업(collaboration)과 같은 것에 있다. 공공민속학은 다양한 수법으로 민중 전통이나 그것을 보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존재하는 곳과 국면에 개입(intervention), 관여(engagement)하면서 다종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그 문화를 재현하고 응용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펼쳐진 이러한 공공민속학의 동향은 일본에서도 2000년대에 들어와 적극적으로 소개되었다. 그렇지만 공공민속학이라고 포착할 수 있는 활동은 그 개념이 일본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미 일본에서도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그것은 예전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협의의 공공민속학, 즉 '공공부문의 민속학'이 중심이었다.

일본의 민속학은 아카데미 밖(extra-academic)의 사람들이 주체가 된 '재야의 학문'이 그 원점에 있다. 그리고 1950년대부터 아카데미즘화를 추구했는데 이와 시기를 거의 같이 하며 공공부문에서의 민속학을 진전시켰다. 가

8) Baron, Robert and Nicholas R. Spitzer eds., *Public Folklore*,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1992.

령 1954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할 때, 문화재의 한 독립된 유형으로 '민속자료'가 공적으로 정의되어,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민속문화재 보호 사업이 활성화되었다.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 행정 안에 민속학의 식견을 활용하는 포지션이 개척되어 많은 민속학자들이 그 활동에 관여했다. 또한 70~80년대에 활황을 보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자체사 편찬사업에도 일본의 민속학자들이 참가하거나 혹은 동원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협의의 공공민속학으로 미국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도 활성화되었다.

단, 이와 같은 협의의 공공민속학은 대부분 응용적인 연구나 실천 활동의 특수성, 그리고 그 사회적 의미나 문제점을 의식하지 않았다. 게다가 스스로의 행위가 필드에의 개입임을 거의 자각하지 못했다. 또한 그 행위는 전통의 담당자 곧 인간보다도 문화 그 자체의 보호에 관심을 보이는 문화중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문화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민속학과 커뮤니티 및 인간의 행복에 복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재의 공공민속학 사이에는 명확한 선을 그어 양자를 구별해야 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일본민속학에서는 공공민속학 개념이 도입된 이후에도 아직 그 개념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있으며, 스스로의 사회실천 활동을 체계적으로 의식화해 수행하는 민속 연구자는 그다지 많지 않다.

3. 아카데미아 바깥(outside of academia)으로 열린 민속학

공공민속학뿐만 아니라 '공공'이란 글자를 두른 학문은 아카데미아 외측으로 학문을 개방하고, 그에 따라 학문의 담당자를 강단 연구자 이외의 주체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민속학의 공공성을 물을 경우, 이 학문에서 지식생산이나 사회실천을 행하는 '담당자'와 그의 '포지셔닝(positioning)'을 강하게 의식하는 게 요구된다. 공공민속학이 펼쳐지는 장은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짊어지는 이들도 매우 다양하다. 종래의 전

통적인 아카데미즘이 상대하지 않았을 것 같은 직업이나 처지, 그리고 그런 것들의 사회실천을 행하는 보통사람들=비전문적인 사람들도 포함해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흐름이다.

공공민속학의 경우 민속학을 단지 많은 행위자(actor)에게 개방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민속학에서 바로 그 다양한 행위자의 관계방식조차도 점검하고 있는 점이 아주 특징적이다. 공공민속학에서는 공공민속학자가 비전문가인 보통사람들에게 민속학이나 민속 연구자의 전문기술을 제공하고, 그들과 함께 현재의 사회문제에 대응한다. 즉 배런과 스피처의 정의에 있는 것처럼 공공민속학에서는 협력작업을 하는 법이다. 다시 말해, 공공민속학에 의해 민속학의 '담당자'를 개방해 간다는 것은 단순히 민속을 둘러싼 행위자를 확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행위자들에게 새로운 관계성=협력작업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공민속학을 생각하는 데 있어 이 협력작업이라는 관계성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필요불가결하다.

공공민속학에서는 민속 연구자가 전통의 담당자를 대하는 자세와 방법, 그리고 전통의 담당자가 민속을 둘러싼 실천을 지향하는 자세와 방법이 문제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예전에, 아니 지금도(?) 프로페셔널한 민속 연구자의 관리 하에 놓여 있는 민속을 公衆이 관리하고,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로 민속의 유지나 보호, 개변이나 이용에 공중이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즉 현재의 공공민속학은 전문가로서의 민속 연구자가 비전문가인 사람들을 향해 그 지식을 단지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자가 협력작업으로 함께 민속학을 행한다는 점에 역점이 놓여 있다. 그런 까닭에 공공민속학자는 종래 연구대상으로 자리매김되었던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한다. 그리고 그 민속의 응용이나 탈맥락화, 민속의 객체화 과정에서 다종다양한 실천을 행함에 있어 권위나 권능, 권한을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한다.

학문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공공민속학에서는 민속학적 지식에 관한 '전문가/비전문가', '생산자/소비자', '발신자/수신자' 따위와 같은 종래의 분단된 관계나 혹은 상하의 관계성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그 지식을 보지,

생산, 발신하는 권위를 공유함으로써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협력작업을 하는 관계성을 추구한다. 그리하여 학문을 협력작업적인 통치 곧 協治(collaborative governance)하는 것이야말로 이상으로 여긴다.

요 수십 년 이래 시민사회가 성숙함에 따라 정책의 입안이나 실시 과정에서 점차 시민의 민주적 참가가 촉진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 등의 공공부문이 정책 입안이나 실시의 권능을 독점해 정책을 '위로부터' 주도하는 통치로부터, 사회의 다양한 행위자가 주체적으로 협력하면서 '수평적으로' 의사결정이나 합의형성에 관여하는 협치로, 통치의 존재방식이 조금씩 이행해 오고 있다.[9] 그러한 가운데 직업이나 처지, 백 그라운드, 능력, 지식 등이 다른 다양한 주체가 각각의 권능을 서로 나눠 협동적으로 일을 하는 사회가 작금의 공공성론에서는 중시되고 있다.[10]

이처럼 협력작업에 가치를 두는 사회의 흐름은 학문 조류에도 큰 영향을 미친바, 공공역사학이나 공공고고학, 공공인류학, 공공사회학 등과 같은 많은 공공의 학문 속에 그 협력작업의 이념이 내장되어 있다. 공공민속학 운동 역시 이러한 조류의 하나로 자리매김되며, 그것은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적으로 민속 혹은 민속학을 통치하는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다. 거기에선 민속 연구자뿐만 아니라 아카데미와는 무관한 직업이나 포지셔닝을 가지며 민속에 관여하는 사람들도 또한 공공민속학자로 간주된다.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민속학의 협력작업은 연구자,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학문통치의 권능을 분여하는 상황으로 옮겨갔다는 점에서 현대 시민사회의 '진보'로 간주할 수도 있겠다. 공공민속학에서는 연구자가 상아탑에 스스로를 유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식생산을 행하고 또한 그 학문과 지식을 사람들에게 환원한다. 그것은 민주적인 학문통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선진적'이다. 또한 舊來의 강단에 편중된 학문

9) 井上真, 『コモンズの思想を求めて』(岩波書店, 2004); Ansell, Chris and Alison Gash,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 (4), 2008, pp.543~71.

10) 菅豊, 앞의 책(2013), 153~157쪽.

관을 초극하는 '이상적인' 방향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회실천을 포함한 응용학문에서 진정으로 그 이상을 구현하는 것은 현실의 국면에서 그리 쉬운 게 아니다. 물론 공공민속학에 국한된 문제인 것은 아니겠지만. 공공민속학의 현장에선 다양한 행위자들의 생생한 욕망이나 이해가 얽히고설키기 때문에 이상은 때때로 희석되고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협력작업이라는 아름다운 이념을 위장해, 조사지의 사람들을 이용하는 듯한 전문가, 연구자들도 때때로 존재한다. 그러한 위험천만함에 공공민속학을 표방하는 인간은 결코 둔감해선 안 된다. 나 역시 조사 현장에서 실천을 수반하는 연구를 계속하는 가운데, 선진적인 테크닉을 구사하는 전문가나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는 협동적인 사회실천이 결국은 협력작업의 이념에서 일탈해 가는 상황을 몇 번이고 봐왔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은 내 경험을 통해 공공민속학의 응용연구・실천의 배후에 있는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4. 내 조사지에서의 체험: 지진 재해에 직면한 필드

니이가타(新潟) 현 오지야(小千谷) 시 히가시야마(東山) 지구의 산간 마을들에는 적어도 200년 이전부터 투우가 계승되어 왔다. 그것은 1978년에 국가 지정의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등록되었다. 본래 사람과 동물의 관계사를 연구해 온 나는 1998년에 이 전통적인 투우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히가시야마 지구에서 필드워크를 시작했다. 당연히 처음에는 투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학술 조사를 위해 히가시야마를 필드로 정해 방문하였다.

그러나 2004년 10월 23일, 매그니튜드 6.8의 直下 형 대지진, 니이가타 주에쓰(新潟中越) 지진이 히가시야마를 엄습했다. 진원의 바로 위에 위치한 이 지구에서는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고 많은 가옥과 재산이 상실되었으며, 투우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 가족처럼 키우던 투우의 죽음은 가족의 죽음과

전혀 다르지 않는 슬픔을 사람들에게 안겼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 나는 외부로부터 관찰하는 연구자로서 이곳의 문화와 사람들을 냉정하고도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조사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을 '조사대상'으로 응시하고 대하는 것에 어떠한 의문도 품지 않았다. 그들을 객체시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일'이었다. 그러나 이 지진을 계기로 내게 이곳 사람들은 단순한 '조사 대상자'가 아니게 되었다. 지진 후 우리들은 함께 생각하고, 함께 느끼며,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관계를 맺게 되었다. 감수성이 결핍된 연구자라면, 이러한 내용을 염치도 없이 넉살좋게 언급하는 나에게 뜨뜻미지근한 감상에 도취된 나이브한 연구자라고 냉소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깊은 인간관계가 있었기에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의 죽음과 투우의 죽음이 분명히 존재했다. 물론, 그러한 것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관계를 깊이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느 새 나도 모르게 그리 된 것에 불과하다.

나는 이 지진 10일 후에 아직 교통기관이 복구되지 않는 피해지역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 곧장 피난 중인 친구들을 찾아다녔다. 그때 내 친구들은 가재도구도 없이 단신으로 체육관에 피난 중이었는데, 그곳은 사람들로 넘쳐났고 모두들 매우 지쳐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체육관 구석에 대피한 친구들이 모여, 앞으로 투우를 어떻게 계승할지를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직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신들의 집, 재산, 일을 잃은 그들은 본래라면 앞으로 자기들의 생활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빠듯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투우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후 지진 재해로부터 지역을 부흥시키기 위한 상징으로서, 전통문화인 투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그것을 부흥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그들의 고향과 투우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되돌아왔다.

전통문화를 활용해 지역을 부흥시키는 이 실천의 과정에 나도 일부분 관여했다. 하지만 그 관여는 일반 전문가와 실천적인 연구자가 하는 것과 같은,

외부적인 가치나 기존의 방법에 기초한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역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그녀들)이 얘기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그들(그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파악하고, 그들(그녀들)에게서 요구를 받게 되었을 때 내 자신의 전공 능력을 제공하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개입, 그렇지만 나에겐 제 나름의 공공민속학적인 활동이었다. 실천과 응용에 열심인 전문가와 연구자들은 분명 나의 이런 실천을 보면, 어딘가 모자라고 부족하게 느낄 것이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히가시야마에 '연구자', '교수'라는 직함을 가진 인간은 나뿐이었다. 그곳은 내세울만한 큰 특징이 없는 일반 산촌으로, 투우 등에 흥미를 지닌 민속 연구자 이외의 일반 연구자와 전문가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인 조사의 필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곳은 지진 후 필드로서의 가치를 확 변화시켰다. 연구자와 그가 교육하는 학생, NPO, 국토교통성의 외곽단체인 정부 계열의 컨설턴트, 정부 관계자 등 많은 외부의 전문가가 이 지역에 모여들었고, 그곳의 전통문화인 투우에서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찾아내어, 그것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부흥을 계획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민속 연구자가 아니고 민속학이라는 학문에도 관심은 없었지만, 사회실천의 기술에는 정통했다. 이러한 非 민속학 연구자와 전문가들의 활동 역시, 특정한 목적 하에 민속을 객체화하고 응용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공공민속학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당연한 말이지만 민속은 민속 연구자, 소위 민속학을 전공으로 하는 연구자와 전문가의 독점물이 아니다. 지식생산과 사회실천의 국면에서 민속학을 전공으로 하지 않는 다양한 백 그라운드를 가진 전문가와 연구자가 민속의 객체화나 활용・응용적 사회실천과 관련되어 있다. 니이가타 주에쓰 지진 부흥에서 민속의 객체화나 민속문화 활용에서도, 오히려 민속학을 전공으로 하지 않는 그런 연구자・전문가들이 그 활동을 주도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지역의 부흥을 목표로 투우를 전면에 내걸고, 실제로는 제 연구 활동의 실험대로 지역과 재해민을 이용하는 이가 있었다. 또 부흥을 위한 기금 일부를

그 부흥 활동과 연관시켜 빨아먹으려는 전문가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연구자, 전문가, 공공부문의 사람들은 사회에 제공되는 다양한 제도를 숙지하고, 그것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기술을 독점적으로 지녔다. 간단히 말하면, 부흥을 위한 보조금의 소재와 그 취득 방법, 계획 등에 관한 전공기술은 특정 전문가들의 수중에 있다 하겠다. 보통 사람들은 필요로 하는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기초적 지식과 기술을 지니지 않았다. 그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전문가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고, 또 그렇게 생각해 버리기 십상이다. 히가시야마에서 전개된 부흥 역시 이러한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사회실천에 익숙한 국토교통성 외곽단체의 컨설턴트는 당시 관료의 낙하산 인사처로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한 단체였다. 그 단체는 투우라는 전통문화를 활용한 부흥 계획을 세움으로써 부흥 기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다. 그리고 컨설턴트는 자신들이 얻는 수수료를 늘리기 위해, '사람들의 요청'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을 점점 확대해 나갔다. 그 컨설턴트와 이에 협력하는 NPO들은 지역 주민들의 요청을 듣기 위해, 사회실천 및 응용을 특기로 하는 전문가와 연구자가 즐겨 사용하는 시민참가 형의 워크숍이나 회의를 히가시야마에서 개최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전문가와 연구자, NPO, 행정, 지역 주민 등 다양한 행위자가 평등한 관계에서 상의해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고, 역할을 분담해 협력하는 '이상적'인 협동작업적 활동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지역 사람들의 목소리는 수렴되어 갔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조사하는 쪽/조사받는 쪽, 전문가/비전문가, 지원하는 쪽/지원받는 쪽과 같은, 구조적으로 고정적인 상하 관계 속에서 생성되어 갔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다.

그리고 지역 사람들이 아무리 자유롭게 발언하는 게 인정된다 해도, 물어야 할 질문은 컨설턴트들에 의해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이야기의 진행 역시 그들이 주도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워크숍과 회의라는 포멀한 분위기 속에서 히가시야마 사람들은 긴장하고, 일상 대화와는 다른 '격식 차린' 딱딱한 말들

이 곳곳에서 발화되었다. 일견 자연스러운 형태로 '사람들의 요청'을 취합하는 듯이 치장된 협력작업적인 워크숍과 그 속에서의 인터뷰는 처음부터 컨설턴트 등의 의도에 적합하도록 유도된 부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예를 들면, 많은 비용이 들어 통상이라면 실현 불가능한 시설, 즉 비가 내려도 행사가 가능한 돔 형태의 투우장을 건설하는 게 컨설턴트에 의해 구상되었지만, 그 안은 한 젊은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꿈을 얘기한 발화 속에서 추출된 것이다. 당연히 이 안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안이 중단된 후에도 컨설턴트 주도의 부흥 사업은 멈추지 않았다. 지진 재해 후 수년 간 컨설턴트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신규 사업을 기획했다.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수익을 올리는 게 그들의 일이고, 사업을 확대시키는 것도 그 일의 일부였다. 단 보조금과 기금은 기본적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수익자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계획의 확대는 지역 사람들의 부담 비율도 확대시키게 마련이다. 이에 대해 히가시야마 사람들은 원래부터 눈치를 채고 있었다. 하지만 전문가가 관리하는 그러한 구조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신들이 지향하는 투우의 부흥, 그리고 생활의 부흥에 불가결한 자금 원조를 받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 주민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응용 계열, 정책 계열의 전문가가 행하는 공공민속학적 활동은 모두 다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때때로 공공이라는 명목을 교묘하게 이용해 의도적으로 지역 현실을 자신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한다. 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외부자의 현실에 대한 개입과, 그 결과인 현실의 재구축을 전면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한 행위가 그것을 마주한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현실에 대한 개입과 지역의 현실을 바꿔가는 걸 과연 '누구를 위해 하는가?', 또 '무엇 때문에 하는가?' 이런 물음들이 공공민속학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5. 기대에 반하는 협력작업의 현장

위와 같이 내가 관여한 현장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작업의 이념에 기초해 공공민속학적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표면적으로 협력작업을 치장했을 뿐이었다. 이러한 협력작업을 수반하는 사회실천의 문제는 내가 관여한 현장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다. 공공민속학이 펼쳐지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골치 아픈 문제이다. 협력작업의 현장에서는 다종다양한 곤란함에 당면하기 일쑤이다.

예를 들면, 외부의 논리와 가치를 무자각적으로 협력작업의 현장에 끌어들이는 행위의 문제를 꼽을 수 있겠다. 공공민속학을 포함하는 응용 연구는 뭔가 '도움이 된다'는 매우 좋은 목표를 지향한다. 그러나 전문가와 연구자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행위는 그것이 전개되는 각각의 토지에서 항상 善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현재 사회에는 통념화한 가치관이 존재한다. 즉 '전통은 지키는 게 당연하다'와 같은 사고방식이 그렇다. 그러한 통념은 때로 일부 사람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 규범화하고, 그 가치관을 공유할 수 없는 소수자를 배제해 버린다. 외부자가 들여온 규범적이고 독선적인 가치가 협동작업을 해야 할 지역 주민을 분단, 혹은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 공공민속학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다양한 지역 주민, 또 다양한 행위자가 협력작업을 하는 곳에서 하나의 가치를 향해 전원이 돌진하는 것은 그다지 용이하지 않다. 다양한 행위자 사이에서 가치는 때때로 트레이드 오프(trade off)되어, 다양한 가치관과 주장 속에서 행위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더욱이 공공민속학적 활동을 행하는 협력작업의 현장에는 교화와 세뇌와 같은 곤란함이 가로놓여 있다. 내 필드 경험을 말하면, 그러한 교화와 세뇌는 종종 '시민참가'라는 지극히 뜨뜻미지근한 수식어를 붙인 '강좌'와 '교육',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포럼' 등,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협력작업하는 장소에서 행해져 왔다.

그러한 이벤트들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문화보호, 지역진흥, 재해부흥, 환

경보전 등을 둘러싸고 일상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그것들은 전문가들이 시민과 목표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시민 의견을 취합하는 데 있어 유효한 수단임에 틀림없겠다. 그러나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때론 사람들을 무의식중에 조용히 교화, 덕화시키고, 계발하는 은밀한 동화 시스템으로 발동한다. 워크숍은 새로운 학습의 장소로 유효하지만, 때때로 세뇌의 수단이 될 위험성도 있다. 워크숍은 종교적인 자기계발 세미나 등과 유사점이 있음은 이미 지적되었는데,[11] 예전에는 거칠게 폭력적으로 상명하달 식으로 억지로 주입되기도 했던 정부 등의 외부 지식과 가치, 규범이 현재는 은밀하고 차분하게, 부드럽고 온화하게 사람들 안에 스며들고 있음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시민이나 NPO의 활동을 '뛰어난 공적'이라고 칭송하는 '○○상'이라는 공공부문의 표창 제도 역시, 그러한 외부 가치와 규범을 은밀하게 침투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2008년 창의성을 살린 뛰어난 지역진흥에 노력한 우수사례로, '국토교통성 지역만들기 표창'을 위한 '전국 지역만들기 추진협의회 회장상' 및 '지역만들기 표창 심사회 특별상'에, 투우를 운영하는 단체인 오지야(小千谷) 투우진흥협의회(이하, 투우회)가 선출되었다. 소를 매개로 세대를 넘어 연결되고, 민속행사로서의 투우에 매진함으로써 지역진흥에 공헌한 게 높이 평가된 것이다. 당연히 이 수상은 지역 사람들에게 경사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되었다. 그러나 국토교통성이 주최한 이 시상식의 배후에 그 외곽단체인 정부 계열의 컨설턴트가 '활약'했다는 것은, 지역 사람들에게는 거의 의식되지 않았다. 이 수상으로 인해 컨설턴트가 주도하는 부흥 사업은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부여된 것이다.

이렇게 민중을 기쁘게 하고 자긍심을 주는, 권위 있는 공적 표창 제도가 국가 등의 특정한 가치와 규범, 사상을 이식하는 교화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것에 대해선 주의를 요한다. 그런 표창 제도가 교화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있음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전시의 일본 상황을 보면 명약관화하다. 또한

11) 中野民夫, 『ワークショップ』(岩波書店, 2001).

지금도 전 세계의 공공부문이 다양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수법을 은밀히 구사하고 있다. 사람들을 천진난만하게 기쁘게 하는 시스템의 배후에 어떠한 저의가 숨어 있는지, 공공민속학의 현장에서는 이를 차분히 응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게다가 공공민속학적 활동을 행하는 협력작업의 현장에서는 '民意'의 위장과 같은 곤란함에도 당면한다. 저널리스트 사이토 다카오(斎藤貴男)는 공공부문이 다양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시민을 끌어들여 '민의'를 위장, 조달, 조작하는 상황을 자세히 까밝혔다. 그중에는 한 지역의 어떤 시민단체 및 NPO를 둘러싼 운동이 국토교통성 등 공공부문에 의해 평가, 찬미, 표창되고, 그 지원을 받아 전국화 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시책에 휘말려 들어가는 가운데, 거꾸로 그 운동이 다른 시민으로부터 공공사업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게 되는, 그런 시민활동의 왜곡도 지적된 바 있다.[12] 당초에 풀뿌리 운동으로 일어난 시민주체의 운동이 공공부문에 의해 예찬되어,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간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느 새 '풀뿌리'적 성격이 공공부문에 의해 어떤 시책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한 '민의'의 권위 보장으로 전환·이용되어, 舊來의 관 주도 시책의 선봉을 담당하게 되어 버린다. 그 배후에는 행정의 하청업자가 되어, 공익을 사칭하며 비즈니스에 열을 올리는 일부 NPO의 현실이 존재한다.

시민성을 대표한다고 선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NGO나 NPO 등이 대두하고, 다양한 행위자의 협력작업성과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주장, 존중되는 현재야말로 정치나 학문에 의한 표면적인 협력작업의 위장과 은폐된 동화 시스템, 은밀한 헤게모니를 간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천의 장에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혹은 보여도 손댈 수 없는 구조적인 권력과 비대칭인 행위자의 관계성이 잠재해 있다.

현장에 개입하는 공공민속학을 수행하면서 과연 우리들은 지역 주민과 시

12) 斎藤貴男, 『民意のつくられかた』(岩波書店, 2011), 110~131쪽.

민이라 불리는 주체들을 행위자로서 진정으로 존중하고, 그 운동체 안에서 바르게 협력작업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신중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6. 나의 변화, 사람들의 변화

공공민속학뿐만 아니라 사회실천을 동반하는 응용 연구는 다양한 방법을 산출하여, 그것을 현장에서 응용한다. 성실하고 열성적인 공공민속학자일수록 많은 응용 사례를 공부하고 참조해 '성공 사례(good practice)'를 찾아내고, 그것을 응용해 보려고 한다. 성공 사례는 종종 타 지역의 공공민속학적 활동에 참고가 되고 또 모방된다. 가령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을 둘러싼 보호의 성공 사례(Good Safeguarding Practices) 등은 다른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활동으로 응용되는 것을 전제로 선정되고 있다. 이러한 성공 사례의 참조가 무용하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사례를 지나치게 신봉하고 신뢰해 버리면, 종종 그 공공민속학의 활동은 정형화, 규범화, 매뉴얼화, 범용화, 수단화 되어 버린다. 게다가 그 수법의 적용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버릴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지역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을 실천 목표로 전면에 내걸고, 실제로는 연구자와 전문가 연구 활동의 실험대로써 지역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소비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아카데미즘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또 그것과 대치하기 위해, 나는 끝이 없는 계속적인 관여 아래 정형화도 규범화도 매뉴얼화도 범용화도 수단화도 되지 않고, 게다가 그 실천 자체를 선험적으로 목적화하지 않는 공공민속학에 도전하고 있다. 그것은 개별 지역과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육성하는 문화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사람들과의 對話를 통해 내재화한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정신적 가치 등을 길어 올려 협력작업을 하고, 나아가 새로운 문화 상황을 만들어 내는 공공민속학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공공부문 주도로 행해져 온 기성품화한 조직적인 공공민속학과는 분명히 다르다.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공공민속학은, 관제의 공공민속학이 간과한 혹은 무시한, 지역에 존재하지만 접할 수 없고(intangible), 셀 수 없고(uncountable), 치환할 수 없는(irreplaceable) 가치를 지역사회 내외에 제시하는 활동이다.

나는 스스로의 공공민속학을 의식하게 되면서 그 필드워크의 방법을 크게 변화시켰다. 그때까지 내가 사용해 온 기왕의 필드 노트, IC 레코더, 카메라를 지역의 친구들 앞에 내놓는 일은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그들(그녀들)의 비참한 체험담을 들을 때도 그것은 인터뷰가 아니라, 보통의 일상 대화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6년 내가 투우회 회원으로 들어가는 게 허용되었다. 이윽고 소에게 기세를 올리는 몰이꾼(勢子)으로 투우장에 들어섰고, 게다가 한 마리의 투우 — 그의 이름은 천신(天神) — 의 오너가 되었다. 즉 연구 대상이었던 전통문화에 대해 더 깊은 개입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통의 연구자에서 그 전통의 담당자로 자신의 처지를 일부 바꾸게 되었다.

단, 문화의 세세한 부분을 조사하는 수단으로서 이른바 참여관찰을 하기 위해, 내가 몰이꾼이 되거나 소를 소유한 것은 아니다. 내가 그 전통의 담당자가 된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계획했다기보다는 지역 사람들에게 공감(empathy)한 나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과의 상호 교류의 결과, 자연스레 이뤄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

문화에 대한 이런 깊은 개입은 우연이긴 하지만, 지역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이 느끼는 방법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또 외부의 국외자인 내가 그들의 문화에 개입하기도 하고 발언하기도 하며, 또 행동하기도 하는 자격(entitlement)이나 정통성(legitimacy)을 일부 획득하는 것으로도 이어졌다.

투우회의 멤버가 되고 난 뒤, 현재의 부흥 활동이 외부의 전문가들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외부의 전문가에 대한 의존을 멈추고 스스로 부흥 활동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나는 투우회 동료들에게 주장했다. 단, 일반 외부 전문가들이 하듯이 회의와 워크숍이라는 포멀한 장소에서 그

것을 표명한 게 아니라, 인포멀한 장소에서 주장했다. 이를테면 투우 행사 후의 작은 연회 등에서 부흥 활동이 화제가 되었을 때, 동료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러한 의견 전달 방식은 일견 소극적이고 효과가 낮은 방법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비공식적 대화 속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게 이 지역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까지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배우게 되었다. 비공식적인 일상 대화에서의 의견 표명은 직접적으로는 확실히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들의 의사결정에 간접적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러한 일상 대화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이나 속마음을 말하곤 한다.

물론 나 역시 투우회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부흥 활동에 대해 논의하는 공식적 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자격이 있었다. 또한 그 조직의 친한 리더들에게 제의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공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난 망설였다. 왜냐하면, 나는 내게 물들어 있는 '교수'라는 직함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권위적으로 작용해 버리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공식적 장소에서 연구자로서의 권위를 몸에 익힌 내가 발언하면, 그 발언이 그들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다양한 속마음을 봉인해 버릴 위험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나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외부 행위자에 크게 의존하는 부흥 활동의 문제점에 대해 지역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계속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히가시야마 사람들도 전문가가 내세우는 계획으로 많은 자기부담이 요구되는 점, 그리고 그 계획의 배후에 많은 수수료를 전문가들이 챙기는 불합리함을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또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소중히 가꿔온 지역 전통문화의 가치가 그 전문가들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존중되지 않는 것에 불만이 쌓여갔다. 그리하여 결국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의존하는 것을 중단하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짜고,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 부흥 활동을 진척시키기로 결단했다.

그들은 그 후 행정기관과 직접 교섭을 시작했다. 투우회 임원들은 시청에

자주 다녔고, 부흥 기금의 구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방의 정치가들로부터 정보를 모으고, 지역의 유력자들로부터 기부를 모았다. 또 조직의 다른 멤버들도 각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계획에 관여했다. 어떤 멤버는 자신의 토지를 외양간 용지로 제공했고, 또 어떤 멤버는 자신의 특기를 사용해 방해가 되는 나무들을 採伐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연스럽게 생겨난 작업의 분담 고리 속에서 나 역시 힘을 보태게 되었다. 그들은 나에게 민속 연구자의 전공지식과 기능, 그리고 대학교수의 '직함'을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기금을 획득하기 위한 공식 신청 서류작성과 매스컴에 이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선전하는 역할이 나에게 할당되었다.

기실 이러한 역할은 히가시야마 사람들에게 내가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팔아서' 얻은 게 아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투우를 즐기고, 그들의 체험에 공감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나를 이해하고 나를 신뢰한 결과, 그들이 나에게 부여해준 역할이다. 나 이외의 투우회 동료들(仲間, 나카마) 역시 각각의 역할을 지니고 있는 까닭에, 다양한 역할 속의 하나(one of them)로 추가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7. 지역 사람들의 주체화: 나의 공공민속학

당연한 말이지만, 나 역시 다른 외부의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국외자다. 내가 아무리 이 지역 사람들과 깊이 교제해도, 또한 아무리 그들과 오래 교제해도 실제로 그들과의 완전한 일체화, 동일화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나와 그들(그녀들)이 동일화, 일체화할 수 있다고,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것은 제아무리 가까워져도 일치할 수 없는 '漸近線'과 같은 접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완전히 동일화할 수 없어도 사람들에게 계속 접근하는 것이, 공공민속학자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령 제아무리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람들에게 공감했다 해도, 그 사람들과

완전히 동일화할 수는 없음을 우리들은 먼저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자각을 가지고 방심하지 말고 접근을 계속함으로써, 사람들이 지닌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보다 깊이 이해해야 한다. 그 공감에 기초한 접근은,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그녀들)의 감정, 감각과 같은 것의 일부를 공유하려는 도전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 측에서 이해하거나 사고하거나, 발언하거나 행동하는 자격을 공유하려는 도전이기도 한다.

내 공공민속학의 현장에는 니이가타 주에쓰 지진 직후 많은 전문가들과 연구자들이 쇄도했다. 하지만 시간의 경과와 함께 그 수는 감소해 갔다. 그리고 지진 후 십 수 년이 지난 지금은 히가시야마에 모여들었던 전문가, 컨설턴트, NPO들은 모두 종적을 감추었다. 그들의 '일'은 다 끝난 것이다. 그들은 종적을 감춤으로써 자신들이 해온 행위의 장래 영향이나, 그것에 대한 지역에서의 평가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투우에 참가하고 전통의 담당자가 되어, 當事者性을 일부 획득한 나에게는 끝이라는 게 없다. 자신이 행하는 실천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일생을 걸고 도맡는 것이 투우의 오너, 그리고 전통 담당자의 일원이 된 나에게는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나의 연구 실천에서도 지진 재해 복구, 부흥이라는 논점은 문제성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내 공공민속학적 활동은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역의 현실, 투우라는 전통문화를 둘러싼 상황은 계속 변화하며, 다양한 문제가 현장에서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13년의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통칭 동물애호관리법)'을 일본정부가 개정했을 때, 투우 등 동물끼리 싸우게 하는 문화가 금지될 뻔 했다. 나는 그러한 외부의 움직임, 상세한 정보를 지역과 투우회에 제공했고, 결과적으로 투우회 동료들과 함께 그에 대응해 동물애호를 배려한 투우의 룰 개정과 수의사의 관여 등과 같은 대책을 강구했다. 동시에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등재에 관한 정치적인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그때 나는 투우회 요청에 응해 그 제도의 이점과 위험성에 대해 학습하는 장을 만들어 지역 사람들에게 해설했다. 결과적으로 투우회와 지역 사람들은 신중히 대응

하는 선택을 했다.

이러한 활동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투우회 동료들은 자신들이 계승하는 투우문화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외부 쪽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주체적으로 민속(투우)을 둘러싼 외부상황과 과제를 이해하고, 나아가 그 상황에 대한 대책을 스스로 연구하게 되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투우회 동료들은 지역문화 진흥을 지원하는 재단의 자금을 활용한 협동적인 프로젝트를 나와 함께 시작했다. 투우는 이미 앞서 언급한 동물애호 사상의 고조와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관광과 지역만들기 등을 둘러싸고, 현대적인 외부 논리와 가치, 혹은 외부에서 들어온 제도와 자원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농락당하고 있다. 그 때문에 투우의 담당자들에게는 문화 계승 과정에서 외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역량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한 상황에 대응해 투우회 동료들은 지역 논리를 간과하기 쉬운 외부자의 개입에 대한 저항력과, 지역 문화 활동의 발전에 불가결한 외부의 제도와 자원을 잘 활용할(두루 사용할) 적응력을 주체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다양한 문제를 연구하려고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것이다.

투우회 동료들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나와 함께, 전통문화 계승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대적 과제를 협동적으로 탐구하는(collaborative learning) 학습회를 10회에 걸쳐 개최했다. 이 협동학습 프로젝트의 최대 특징은, 동 기획의 주도적 역할을 한 이가 바로 그 지역문화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데에 있다. 그 점 정말로 한 점의 거짓도 없다. 이처럼 외형적으로 정비된 프로젝트를 입안하거나, 외부단체로부터 보조금, 조성금 등의 자금을 받을 때는 통상 전문가와 연구자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사람들은 그런 자금의 존재조차 모르며, 알아도 자금을 받아내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다. 따라서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해도 결국은 실무적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 되면 협력작업이라는 이름만 내걸고, 실제로는 역시 연구자・전문가와

지역 사람들 사이에 위아래 혹은 주종 관계가 생기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그 반대였다. 지진 재해 후 다양한 경험, 그리고 나와 나눈 다양한 의견 교환 속에서 그들은 민속과 그것을 둘러싼 상황을 스스로 배울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학습에 도전한 것이다. 어느 날 투우회 회장은 내가 몰랐던 그 자금원을 찾아내어, 돌연 내게 연락을 해왔다. 그리고 그 자금 획득과 기획에 대한 조력을 요청했다. 내게 자금을 획득하기 위한 대표자가 되어 서류작성을 해달라고 말했다. 나는 갑작스런 요청에 놀랐지만, 나 역시 당사자 곧 투우회의 일원으로서 관여하지 않을 까닭이 없었다. 신청 마감도 촉박했기 때문에, 나는 바로 투우회 동료들에게 이 자금을 받아서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은지를 듣고, 그 전체상을 명확히 하여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리하여 프로젝트 채택 후에는 '도다이(東大) 교수'라는 직함의 허세가 좋아 보이는 내가 프로젝트의 대표자가 되었지만, 이후의 학습회 기획과 운영에서는 투우회 동료들이 주체적으로 움직였고, 나는 그 기획 실현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바로 그게 투우회 동료들이 내게 기대한 역할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투우를 둘러싼 여건이 어려워져 가는 상황 속에서 투우를 스스로 관리하고, 그 유지와 보호, 변경과 이용에 스스로 참가할 역량을 익히려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을 둘러싼 문제를 이해하고 그에 적응하기 위해, 외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제도와 자금, 인재를 잘 활용하는 기량을 닦고 있다. 그러한 활동을 멀리서 방관하지 않고, 또한 억지로 강요하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생각하고 움직이고 즐기는 것이 나의 공공민속학이다.

8. 맺음말

이상과 같이 내 공공민속학적 활동은 처음부터 면밀하게 계획되고 숙고된 체계적인 활동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공공민속학을 펼치기 위해 이 히가시

야미에 다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애드 호크'(ad hoc, 그곳에 한정된－역주)한 활동이며, 그곳을 계속 다니는 과정에서 동료들에게 우연히 뭔가 요청을 받게 되어, 조금 소매를 걷어 올린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평소 나는 그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 한 달에 한 번 투우하러 다닌다. 그리고 나는 투우회의 다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투우장의 준비와 정비, 뒤치다꺼리 등을 돕고, 내 사랑스런 소를 모두에게 선보이고, 재미있는 소싸움을 같이 즐기는 데 불과하다. 단, 그러한 일상의 사이사이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곧 민속학자로서의 지식과 기능의 응용으로 어떤 구실을 하는 게 나의 공공민속학이다.

일반적인 인문·사회과학의 기초 연구, 특히 민속학의 연구는 응용을 표방하는 실학적인 사회과학자와 전문가들처럼 사회와 사람들에게 직접 공헌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다. 또한 그러한 공헌을 선험적인 所與의 목적으로 지향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응용을 주로 하며 종종 처음부터 응용만을 중시하는 연구와는 다른 위상에서, 민속학이 사회와 사람들에게 공헌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공헌하기 위해서는, 응용연구가 엉성하게 다루기 십상인 사람들의 細部에 걸쳐 있는 현실을, 농밀한 필드워크에 의해 적확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국면에서 공공민속학이라는 방법은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한 걸음 더 들어가자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현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공공민속학에 의해 사람들이 추구하는 현실을 협력작업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나는 오히려 이러한 현실의 창조성이야말로 공공민속학을 하는 의의, 그 방법으로서의 독자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공공민속학에 의해 현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현실의 창조나 변화의 방향과 영향의 정도, 그리고 결과의 평가는 아무도 확실히는 예상할 수 없다. 그러한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타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도 되짚어보고, 그 결과를 유연하게 자신의 행위로 환원

해 수정하는 재귀적이고 순응적인 공공민속학의 설계를 해야만 한다.

내 공공민속학에서는 사람들과 장기간에 걸쳐, '정형화도 규범화도 매뉴얼화도 범용화도 수단화도 되지 않고, 게다가 그 행위 자체를 선험적으로 목적화하지 않는 營爲로 계속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3] 이는 不定形인 까닭에 보편적인 영위는 될 수 없다. 어디까지나 내가 민속학의 공공성을 스스로에게 다시 물었을 때 도달한 나의 방법인 것이다. 그것은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똑같이 해서 좋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는 내 공공민속학의 방법을, 현실과 마주하는 다른 민속연구자들에게 강요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 다만, 각각의 민속학자가 자신이 기댈 곳으로 삼는 민속학의 공공성을 다시 물을 때, 旣成의 응용・실천 방식이나 외형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가 관여하는 현장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공공민속학적 방법을 생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히가시야마에서 종적을 감추고 나서 한참이 지난 어느 날, 투우회의 한 동료가 나에게 이런 말을 던졌다.

"선상님은 땡전 한 닢 가져온 게 없는디, 아직도 여기 있는 게벼."

이건 나를 향한 최대의 찬사였다. '지금, 여기'를 함께 계속 하는 것의 소중함을 넌지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13) 菅豊, 앞의 책(2013), 100쪽.

▌참고문헌

菅豊,「現代アメリカ民俗学の現状と課題: 公共民俗学(Public Folklore)を中心に」,『日本民俗学』 263, 日本民俗學會, 2010.

___,「公共民俗学の可能性」(岩本通弥・菅豊・中村淳編,『民俗学の可能性を拓く』, 青弓社, 2012.

___,『「新しい野の学問」の時代へ: 知識生産と社会実践をつなぐために』, 岩波書店, 2013.

井上真,『コモンズの思想を求めて』, 岩波書店, 2004.

斎藤貴男,『民意のつくられかた』, 岩波書店, 2011.

中野民夫,『ワークショップ』, 岩波書店, 2001.

Ansell, Chris and Alison Gash,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 (4), 2008.

Baron, Robert and Nicholas R. Spitzer eds., *Public Folklore*,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1992.

Borofsky, Robert, "Public Anthropology: Where To? What Next?", *Anthropology News* (41)5, 2000.

Burawoy, Michael, "For Public Sociology (ASA Presidential Address, 2004)",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0, 2005.

Cauvin, Thomas, *Public History: A Textbook of Practice*,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16.

Dean, David M. ed., *A Companion to Public History*, Hoboken: John Wiley & Sons Ltd, 2018.

Kelley, Robert, "Public History: Its Origins, Nature, and Prospects", *The Public Historian* 1 (1), 1978.

Leffer, Phyllis K. and Joseph Brent, *Public and Academic History: A Philosophy and Paradigm*, Malabar: Robert E. Krieger Publishing Company, 1990.

McGimsey, Charles R. III, *Public Archeology*, New York: McGraw Hill, 1972.

Merriman, Nick, "Introduction: Diversity and Dissonance in Public Archaeology", in Nick Merriman ed., *Public Archaeology*, New York: Routledge, 2004.

Peacock, James L., "Anthropology and the Issues of Our Day", *AnthroNotes* (20) 1, 1998.

The Possibility and the Task of Public Folklore
−how would the folklorist react when the publicness of the academy is in question?−

Suga Yutaka*

For the publicness of the academy is in question nowadays, the scholars or the experts should seriously consider the role, mission, method and the ethics of one's own study and knowledge production in the civil society. It is not only related to the applied science and natural science scholars, but also to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cholars, who have kept their distance from the problems of the real society.

In the field of folkloristics, the public folklore has started in America since the 1970s, and has applied the folklore in the social practices. These activities focus on the representation, application, and furthermore the recontextualization of the culture, as well as on the collaboration of the various agents. The public folklore refers to the representation and the application of the culture by the folklorist, along with a variety of people. The public folklorist make intervention and engagement to the folk tradition, the people who preserve it, and the place where it exists.

Among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folklore, especially the way of existence of the collaboration is becoming the basic ethics of the time when the publicness of the academy is in question. Thus, in the realm of public folklore, the public

* Tokyo University

folklorist should not only make the folkloristics accessible to the various agents, but also question the way of relationship between those agents and the experts. In the field of public folklore, the attitude and method of the public folklorist toward the preservers of the tradition, and those of the preservers of the tradition toward the practices regarding the folklore are always the considerable issues. Also, the aim of public folklore is to put the folklore under the control of the common public - which was formerly under the control of the public folklorist. And encouraging the public to engage in the conservation, amelioration, and the application of the folklore through the democratic process is the aim of the public folklore as well. Hence the current public folklore concentrates on the collaborative folkloristics practices between the folklorists and the non-experts, as well as delivering the knowledge from the experts to the non-experts.

At present, the ideal principles and the sublime idea of the collaborative work is getting generalized. However, they aren't fully accomplished in the actual field. Moreover, there are even the cases where the scholars or the experts deceive and exploit the people under the pretence of collaboration. In these circumstances, public folklorists must go through the deep fieldwork, understand the reality that people wish, sympathize with them, and realize the reality through the collaboration in order to countervail the deception. From then on, the long-term social practices of the folkloristics would hold the methodological identity and superiority that are absent in other studies.

[Keywords] public folklore, application, collaboration, empathy, representation, engagement

이 논문은 2019년 7월 24일 투고되어,
2019년 8월 14일에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2019년 8월 16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

실천민속학연구 제34호

2019년 8월 27일 인쇄
2019년 8월 31일 발행

발 행 실천민속학회
36729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안동대학교 인문예술대학 민속학과 내
전화 (054) 820-5383
E-mail : silchunms@gmail.com
Homepage : http://www.folklore.or.kr

제작 · 판매 민속원
서울 마포구 토정로25길 41(대흥동 337-25)
전화 (02) 804-3320, 805-3320, 806-3320
팩스 (02) 802-3346

ISSN 1975-5740

값 31,000원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